

LG電線(株), 통합 배선시스템 사업 進出

국내 최대의 케이블 생산 업체인 LG電線(株)(代表: 權炆久)가 통합 배선 시스템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통합배선시스템이란 LAN(근거리 통신망)이나 WAN(광역 통신망), PABX(私設 교환기) 같은 정보 통신기기를 하나의 배선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으로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LG전선은 종래의 방식이 전송 특성에 있어서 거리나 속도에 제한이 있고 업무 확장이나 조직 변경에 따라 별도의 배선 공사를 하는 등 정보화사회를 실현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착안, LG전선이 가지고 있는 설계능력과 케이블 생산·설치공사를 일괄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어 이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전선은 지난 달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100Mbps급 UTP케이블들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해 케이블과 악세사리 등을 수입해 설치 공사만 담당하고 있는 외국 업체의 국내 대행사에 비해 시스템 설계부터 케이블 생산, 시공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고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목표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시장 규모가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던 이 통합 배선시스템 시장에 국내 업체인 LG전선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외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日進電機工業(株), ISO 9001 인증 획득

日進電機工業(株)(代表:金伸卓)가 전력금구류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ISO 9001 인증서를 수여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일진전기는 이번에 ISO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폭넓은 범위의 인증을 바탕으로 同분야 내수판매 및 수출에 있어 한층 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일진전기가 이번에 획득한 ISO 9001은 전기사업본부의 차단기 및 개폐기류, 배전반류, 발전설비류, 전력금구류와 서보모터등이 해당되며, ISO 9002는 주조사업본부의 알미늄 주물품, 산화아연바리스타등으로 총 7개분야에 30개품목이다.

일진전기 TQM사무국은 ISO시리즈 인증서 획득을 위해 지난해 11월 8일부터 금년 3월까지 각 부서 대표를 선출, 총 22명으로 구성된 추진팀의 가동과 함께 외부지도기관인 '한국품질관리 기사회'와 컨설팅계약을 체결, 일주일에 3일씩 추진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하는등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ISO요구 스타일에 맞춰 내부업무규정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른 업무추진교육 및 내부감사를 통해 시스템 적용도를 체크하고 문제점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는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다.

國際電機(株), 지하철用 주상 변압기 開發

國際電機(株)(代表:金俊哲)는 국내 처음으로 대우중공업 철차사업부와 공동으로 지하철 전동차 정전압 정주파수(VVVF) 주변압기를 개발,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국제전기는 이 제품의 시험검사를 일본 도시바社에 의뢰해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서울 과천선 지하철 전동차용으로 대우중공업에 9대를 시험 납품했으며 대우중공업측의 시험결과에 따라 추가 납품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에도 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사가 개발한 주상변압기는 지하철 전동차 객차 2~3량에 1대씩 설치돼 차량을 움직이는 주전원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돼왔다.

국제전기는 그동안 국내시장을 주도해 오던 일본 도시바社 제품의 가격이 1억3천만원인 것에 비해 이번에 개발한 국산품은 6천5백만원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수입대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太一自動制御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무정전전원장치 및 자동전압조정기 전문 제조업체인 太一自動制御工業(株)(代表:李熙駿)는 외부기관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社的인 품질관리 운동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 생산기술연구원에서부터 KSA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1989년 국내 최초의 초소형 박형 SLIM UPS 개발의 성공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상 및 삼상 UPS의 대용량화 개발을 추진, 완료하여 생산, 공급을 개시하였고, 자동화 기술과 결합한 PPS(전압, 주파수 가변 전원장치) CAT SYSTEM(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국내유수의 제조업체에 납품, 설치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1983년 11월에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와 50:50의 합작으로 설립된 모험기업(VENTURE BUSINESS)의 선두주자로서, 설립이래 자체 기술에 의한 중소형 AVR, UPS 를 개발, 생산하여 왔으며, 1989년부터는 공장자동화 및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하여 Software 및 통신 분야의 실적을 쌓아왔으며, 1984년 “우수 기술개발 성공업체”선정, 85년 “유망 중소기업 선정” 86년 “10대 성공적인 모험기업 선정”등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다.